

“농민화가들의 예술로 읽어내는 창의적인 시선”

**중국 저장성 자싱시 시우저우구 현대민화전
15일까지 함평 잠월미술관... 18명 30점 작품
“농민화, 세계진출 중요 문화교류 창구 역할”**

“민화는 한 시대의 삶과 마음을 담어내는 그림이요. 중국의 민화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생활과 정서를 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표현과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이번 시우저우 현대 중국민화전은 전통의 뿌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오늘날의 시선으로 삶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자리입니다. 소박하지만 깊이있는 색과 형태 속에서 민화가 지니는 생명력과 시대의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시우저우 현대민화전을 보고 김광욱 관장이 밝힌 소감이다.

함평 해보 소재 잠월미술관 (관장 김광욱)

은 올헤 첫 전시로 지난 1일 개막, 오는 15일까지 ‘중국 시우저우 현대민화’전을 마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출품작은 18명 30점. 중국 시우저우는 저장성 자싱시 시우저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지난해 갤러리 생각상자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민화 중에서도 농민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시는 노정숙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항저우 중국미술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뒤 주석(포르투갈 리스본 소재 ASIAN&AFRICAN&MED&EUR AND AMERICAS·AAmh 국제예술센터)과의 인연으로 초대했다고 한다. 전문

적인 예술교육을 받지 못한 중국 농민화가들의 일상 속 모습과 정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들의 작품은 전문화가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투영, 전통에 뿌리를 두는 등 소박한 화면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또 시우저우 농민화는 40여년 동안 이 지역문화와 역사를 담은 아름다운 기억이자 민간예술의 매력을 계승하는 ‘문화명함’으로 통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향진 민간미술 분야의 중요한 대표 중 하나로 농촌문화를 건설하는데 있어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설명이다.

1987년 이래 4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룬 시우저우 현대 민화는 중국 각지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핀란드, 두바이 등 해외에서 3000점 이상이 선보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1996년에는 아시아 타임즈가 아시아 10대 예술가로 마우 후이신 화가의 이름을 올리면서 시우저우 민화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지 못한



위 연작 'Where the Fields Remember'

농민화가들이지만 일상 속에서 보편적인 예술의 힘을 발휘해 시선을 끌었으며, 특별한 잠재력을 근거로 늘어난 예술적 폭발력을 발휘했다는 반응이다.

출품작가로서는 덩 아메이를 비롯해 덩 치아오잉, 덩 샤오바오, 페이 진바오, 펑 윈 환, 리 셴량, 탕 아인, 타오 린쥬, 우 하이

메이, 우 신운, 주 메이잉, 양 장룽, 위 메이팡, 위 연징, 장 아이링, 팡 리쥘, 장 리밍, 장 슈에진, 주 천 등이다.

노정숙 회장은 “전문적인 예술교육 체계 속에서 길어지는 우리에게 이번 시우저우 현대 중국민화전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과 깊은 울림을 줬다. 시우저우 농민화가

들의 예술로 읽어내는 창의적인 시선을 통해 또 다른 감성과 아름다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뒤처 주석은 “시우저우 농민화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나아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문화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광욱 관장은 “잠월미술관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며, 한글을 모르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한글 수업과 함께 미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청춘화당을 개설, 그림과 시가 있는 시화집을 발간한 바 있다”면서 “중국 농민화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들의 작품에서는 과장되지 않고 튀지 않으면서도 소박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깊이있는 색과 형태 속에서 민화가 지니는 생명력과 시대의 변화를 함께 투영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막식은 지난 1일 뒤처 주석 및 순찬 광주 중국부총영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자연의 순환 속 인간의 삶과 존재 탐구

한부철 기획초대전 내달 20일까지 드영미술관
‘꽃: 지면 피더라’ 주제 출품작 수채화 총 42점

드영미술관은 30년 이상 수채화 작업을 지속해 온 한부철 작가 기획초대전을 5월 20일까지 갖는다. 지난 3월 27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꽃: 지면 피더라’는 주제로 열린다. 출품작은 수채화 총 42점.

전시 제목 ‘꽃: 지면 피더라’ 역시 꽃이 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다시 피어남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자연의 순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안에 깃든 시간과 기억, 감정의 층위를 종이 위에 스미고 번지는 수채의 물성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온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며,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과 존재를 성찰해 온 그의 시선을 소개하는 자리로 손색이 없다.

그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꽃, 잎, 연잎, 들꽃, 바다, 밤하늘, 장독과 같은 이미지는 자연의 질서와 더불어 인간의 삶이 지닌 유한성, 회복, 상실, 기억의 문제를 함께 환기한다. 특히 종이 위에 겹겹이 스며드는 색과 투명하게 번지는 붓질은 수채화 특유의 맑고 깊은 감각을 드



‘꽃: 지면 피더라’

러내며, 자연의 호흡과 생명의 흐름을 섬세하게 시각화한다.

같은 소재를 반복해 다루면서도 매번 다른 정서와 감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가의 회화는 꽃이 지는 장면은 삶의 유한성을 떠올리게 하고, 넓게 펼쳐진 바다와 하늘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깊고 거대한 시간을 감각하게 한다. 또 장독과 사발 같은 일상의 사물은 어

머니의 기억과 삶의 근원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를 지탱해 온 정서적 기반을 환기하는 가운데 자연의 풍경을 넘어 삶에 비추는 내면의 풍경으로 확장된다.

이번 전시에는 ‘숨: 쉬다’를 비롯해 ‘사유하다’, ‘바라보다’, ‘담다’ 시리즈를 중심으로 세 개의 전시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초록빛 자연을 중심으로 한 ‘숨: 쉬다’ 연작을 통해 생명의 회복과

치유의 감각을 선보이며, 두 번째 전시실에서는 ‘사유하다’, ‘바라보다’, ‘담다’ 시리즈를 통해 삶과 존재에 대한 성찰을 풀어내고, 세 번째 전시실에서는 청록빛 바다와 밤의 풍경을 통해 고요한 위로와 사유의 시간을 전한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변화와 상실 또한 또 다른 시작을 향한 시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변기숙 학예실장은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작업은 자신의 삶의 경험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질병으로 인해 작업과 일상의 흐름이 멈추는 시간을 지나는 작가는, 자연과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서서히 삶의 리듬을 되찾아 간다”면서 “화면 위에 쌓이는 붓질은 멈추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된다. 그렇게 반복은 삶을 지탱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길로 이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시인 양광모의 ‘가장 넓은 길은 이번 전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건넌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 5월’ 펜과 노트·브로치로 형상화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이하 재단)은 오는 5월 31일까지 제1차 북카페 은새암에서 광주오월을 기념하기 위한 굿즈 전시 ‘다시, 오월의 빛으로 피어나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지역 공예 작가들이 협업해 추진한 ‘오월의 빛 프로젝트’ 결과를 선보인다. 재단은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전시에는 도자와 섬유, 금속, 목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



다. 공예 작품은 관람객의 일상으로 이어지며 오월의 가치가 현재적 연대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재단은 성평등 문화예술공간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 자산과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여성가족재단, 기획전 내달까지 북카페 은새암
오늘부터 공예 체험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진행

가 15명이 참여해 총 5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참여 작가들은 지역 공방 기반의 디자인을 통해 오월의 기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관람객은 일상의 사물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해당 기획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삶과 연결된 가치로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오월 유족들이 간직해 온 기억은 작가들의 해석을 거쳐 새로운 결과물로 구현돼 민주·인권·연대의 가치를 담은 상징적 오브제로 제시된다. 실제로 광주오월에 대한 발자취와 기억은 활자를 새기는 펜과 노트로, 향기를 뿜어내는 향초로, 옷매무새를 장식하는 브로치로 각각 형상화된다.

특히 역사적 의미를 일상적 사물로 확장해 접근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

역사와 예술이 결합된 공공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오미란 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작가와 오월 유족이 함께 만들어 낸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의미가 크다”며 “공예를 통해 광주 오월의 정신을 보다 일상적이고 친근한 방식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 연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7일부터 시작돼 오는 5월 28일까지 총 4회 운영되며, 참여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공예 체험으로 구성된다. 시민은 제작 과정을 경험하며 작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전시 오픈행사는 6일 오후 2시 전시 현장 은새암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시 기획 의도와 참여 작가 소개, 작품 해설이 전개됐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무용·서커스로 신체감각·상상력 깨우는 공연

ACC 어린이극장, ‘탈출’·‘해피 해프닝’ 등 2편 선봬



ACC어린이극장 공동기획 ‘렛츠 플레이’로 마련된 ‘해피 해프닝’의 무대 모습.

무용과 서커스를 토대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신체 감각을 자극하는 어린이 공연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잇달아 선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명규)은 4월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공연 두 편을 선보인다. 먼저 오는 18일부터 19일 선보일 어린

이 무용극 ‘탈출’은 대구시립무용단과 현대 무용단 고블린 퍼티가 협업해 만든 작품이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는 ACC어린이극장 브랜드 공연 ‘난생처음 시리즈’로 마련됐다. 가면무도회, 병원은 싫어, 미로 인 주인, 춤추는 당근, 꼭 싸워야 해?, 꿈 잎 뿐이야 등 프로그램을 따라가며 탈과 춤을 매개로 상상 속 세계를 탐험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어 25일부터 26일까지는 전문 서커스 창작 단체인 공간 서커스실용이 선보

이는 ‘해피 해프닝’이 관객을 찾는다. ACC재단과 (재)종로문화재단, (재)김포문화재단이 함께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춘 어린이공연을 선정해 각 지역 무대에 선보이는 ACC어린이극장 공동기획 ‘렛츠 플레이’로 마련된 무대다.

네 명의 서커스 요정들이 등장해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이 작품은 공중에서 펼쳐지는 균형과 긴장, 즉흥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놀이와 예술로 확장되는지 보여준다.

두 공연은 4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누리집(www.accf.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